

제 192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GHQ 점령기의 일본영화와 <여성해방> -미조구치 겐지를 중심으로

강연자: 김보경(金普慶)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김보경 선생의 'GHQ 점령기의 일본영화와 <여성해방> -미조구치 겐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2 월 8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김보경 선생의 연구는 GHQ 점령기에 제작된 미조구치 겐지의 영화텍스트군을 동시대 상황 속에 재배치하여, 텍스트에 표상된 여성상 및 <여성해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의 여성영화 또는 비평공간 속에서 미조구치 영화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였는지를 검토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점령하의 일본에서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만들어진 <여성해방>이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둘째, 전후 민주주의와 <여성해방>이 사회규범으로 작용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영화의 여성상 또는 여성영화의 장르규범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게 되었는가. 셋째, 이 같은 문맥 속에서 미조구치의 '여성영화'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저평가되어온 점령기 미조구치 영화의 재평가를 통해 점령하 일본의 영화와 <여성해방>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김보경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전후 국제사회 질서를 미국의 주도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점령이 '정복'이 아니라 전범국인 일본의 '민주화, 근대화'라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전후 평화시대의 리더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연출함에 있어 '일본여성의 해방'은 최적의 소재였는데, 일본의 봉건적 가부장제에 묶여 학대되어 온 일본의 여성을 해방하고 민주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건설될 새로운 일본 사회의 자율적인 주체로 만들어감으로써 점령을 경계로 과거에서 벗어나 재출발하는 일본을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점령 표상을 창출하는 것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점령하의 일본에서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인 영화를 통해 여성해방의 이상적인 상태 또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상하고 이를 일본인의 의식에 침투시키고자 하였는데, GHQ 는 영화 속 여성의 이미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후 일본사회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젠더질서의 재구축을 꾀하였다. 이러한 일본 전후사 및 영화사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점령기 민주주의의 도입과 함께 일본사회가 쇠신되었다고 하는 전전·전시와 전후를 격리시키는 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 영화를 통하여 일본의 '전후'를 재조명하려는 취지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는 종래 일본영화사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자주영화나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등까지도 주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였으나 GHQ 가 영화정책에서 가장 주력했던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 구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영화연구에서 '주류'에서 속했다고 간주되는 영화작가들의 작품 각

작가의 특성만을 주목한 작가주의적 연구로 점령기라는 시대상황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점령기 여성영화는 종래 일본에서 이 장르 카테고리가 수용되어 온 문맥 속에 발을 걸쳐두면서도, 여성해방을 이상으로 하는 시대상황이 그에 접합하면서 다소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명확한 장르가 되었다고 김보경 선생은 설명했다. 이러한 문맥에서 전전의 미조구치 영화 또한 점령기적 '여성영화'로서 재평가되었던 것이며, 그 한편으로 미조구치의 점령기 작품에 대한 비난 또한 같은 문맥에서 미조구치 영화가 점령기의 '여성영화'로서 실패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이다. 점령기의 영화를 통한 '여성해방' 담론의 구축은 여성영화라는 특정 장르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이러한 여성해방 및 여성영화를 둘러싼 남성 중심적인 비평공간에서 미조구치의 영화는 언제나 문제시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테제를 제시하지 않는 미조구치 영화의 이데올로기적인 애매함, 그 비관적 색채를 띤 일종의 열린 결말이야말로 남성관객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동시대 비평가들이 불만을 느낀 원인이었는데,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매춘부들의 뉘우침과 갱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도덕적인 반발심을 느끼고 미조구치에게는 '팡팡'을 구제할 자신감이 없던 것이라며 비난했다. 같은 결말이 CIE의 호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남성의 윤리적 감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토가 외국인들에게 점령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소유물이어야 할 일본인 여성의 신체가 미국 남성에게 '점령'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인종적, 성적 콤플렉스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고 김보경 선생은 보았다. 또한 미조구치는 '팡팡영화'라는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면서도 그 영화에 '매춘부'를 바라보는 남성관객들의 시선을 스크린 내부에 새겨 넣었는데,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비열한 시각을 영화는 그대로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김보경 선생은 강연을 마쳤다.

질의응답

1. 미조구치의 영화가 CIE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CIE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때마다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특히 영화 속 매춘과 성병, 낙태의 묘사에 민감하였고 어린이의 생식기와 나체의 묘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플롯의 전개, 메시지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군의 얼굴은 나오나요? 미군의 얼굴이 나오는 팡팡영화가 있었나요?
➔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이 사용하는 영어단어조차도 가려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 여성해방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연구에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여성영화라는 것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며 그녀에게 영화의 시점구조 및 영화적 언

설의 연표작용의 레벨에 대한 중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성적'이라고 정의되는 문제를 다루며 여성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조구치의 여성영화라는 것은 1946년이라는 시기에 여성을 속박 해온 과거 일본사회의 봉건주의를 불식시켜야 할 '악'이라 규정하고 그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이상으로 하는 점령기의 시대적 문맥 속에서 소급적으로 여성영화라고 정의되었던 것이며, 점령군들이 보기에는 여성해방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분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검열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팡팡영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소셜 캠페인과 연관이 되어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검열이라는 코드를 넣은건지, 아니면 팡팡에 대한 소비욕구와 같은 것들이 최고치에 올랐던 시기에 그것을 사회문제로 의식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팡팡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CIE의 검열코드의 영향 아래, 매춘부의 갱생이야기를 통하여 혼전·혼외 성교를 금지하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정조관념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다분히 계몽적 색채를 띤 독자적인 장르규범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팡팡과 대비되는 존재로 '순결한 여성'을 등장시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여성의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이는 당시 팡팡에 대한 소비욕구 소비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